



## 자매교구 주교들의 공동 사목교서

대구 대교구 (대한민국), 보쿰구 이킬라 교구 (콩고  
민주공화국), 살쯔부르그 대교구 (오스트리아),  
상트 이그나시오 데 벨라스코 교구 (볼리비아)



##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 1 성소 주일에 우리는 목자이시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떠올립니다. 그 분은 각기 다른 나라와 민족 그리고 언어로 이루어진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신 하느님의 어린양이십니다 (참조. 묵시 7,9). 그 어린 양은 당신의 양을 아는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의 양들은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갑니다 (참조. 요한 10,27). 목자이신 그 분과 그분의 양들의 관계는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오로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믿는다는 것은 듣는다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참조. 로마 10,17). 그리고 세례자 요한 역시 나는 그 목소리를 듣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조. 요한 3,29).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자매교구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세계로 열려진 들음의 공동체이자 귀 기울여 듣는 경청(傾聽)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를 커다란 기쁨에 넘쳐 자매교구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우정 어린 관계 속에서 이루어 나갑니다.
- 2 지난해 우리는 살쯔부르그 (오스트리아), 대구 (대한민국), 상트 이그나시오 데 벨라스코 (볼리비아), 보쿰구 이킬라 (콩고) 교구들 사이에 맺어진 자매교구 설정 50주년을 기념하였습니다. 이는 친밀한 만남과 기도, 감사

의 시간이었으며, 서로 함께 나누고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기회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과 완전히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다르다는 것이란, 대한민국에서, 볼리비아에서,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또는 오스트리아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이한 언어와 문화, 또한 각 상황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 3 상이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며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 서로를 묶고 있습니다. 당연히기도 우리는 이 믿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며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들의 경험을 나누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기울여 상대방에 대해 듣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은 각기 다르지만, 유사한 사목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우리는 함께 서로 노력을 기울일 수 있고, 우리 시대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 공동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통된 소명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양들이 그들의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듯이 우리는 함께 이 도정(道程) 위에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도반(道伴)의 여정 속에서 점차 여러 실질적인 도전에 직면한 우리의 선교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판단력을 지닌 배움의 공동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 4 그래서 우리는

- 성령께서 각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참조. 묵시 2,7) 소식을 상호간에 전달하는 것과 서로 듣기를

- 일곱 공동체에 보낸 서간과 같이 서로 간의 격려와 형제적인 조언을
- 상호간에 풍요로움을 더하고 영감을 주기를
- 상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다른 시야와 관점을 받아들이기를
- 우리의 시야를 넓히며 새로운 길로 내딛는 데 고무되기를
-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미사를 거행하기를
-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를 (물질적, 인적, 정신적으로)
- 함께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서로에게서 배우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 5 우리들의 세계교회를 향한 자매교구 관계는 지상에 펼쳐져 있는 하나의 연결망(連結網)과 같습니다. 이 망(網)은 우리에게 있어서 안전과 자유를 가져다주는 망(網)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긴밀한 우정은 다른 이에게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에게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세계교회를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구현하는지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세계교회적인 자매교구 50주년에 맞추어 우리는 우리가 일구어 놓은 것에 안주(安住)하거나 정주(定住)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들의 함께함을 이어 삶에서 실천하며 그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바오로와 바르나바처럼 우리는 이 여정을 걸어 나갈 것이며 새로운 난관(難關)에 맞설 것입니다. 이 두 분은 항상 이방인의 고을로 가셨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찾아내셨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통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과 함께 있는 타지에서 온 우리들의 친구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야만 하는 것을 들을 것입니다. 다른 교구에서 파견된 대표단, 청소년과 청년, 신부와 봉사자들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외부에서 우리들의 일상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시선(視線)을 건네 주기 때문이며,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자세(姿勢)와 방안(方案)에 말을 건네고 그 이면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6      하느님의 자녀로서 믿음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기 위해 우리는 성덕의 믿음, 이웃사랑 그리고 그리스도교적인 희망으로 전향하고 이를 살아나가고자 하는 바람에 강하게 이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는 이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교황 베네딕도 16세) 이 확고한 믿음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경계들을 넘어 이 형제·자매적인 결연을 더욱 촉진합니다. 주 하느님, 저희로 하여금 서로,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역동적으로 이 우정을 쌓아 나가게 하소서. 저희는 **당신**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며 **당신**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 *franz ferdinand oser* + *thaddäus chwe*

프란츠 라크너 대주교  
오스트리아 살쯔부르크 대교구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  
대한민국 대구대교구

+ *R. Stock*

로베르트 플로크 주교  
볼리비아  
상트 이그나시오 데 벨라스코 교구

+ *H. Ammer*

교구장 서리 에메리 키발 느쿠피 만송루 주교  
콩고 민주공화국 보쿰구 이킬라 교구



### 자매교구 십자가 (전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서로 이어주는 매듭이시며, 그분은 우리들의 세계교회적인 우정을 가능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십니다.

(출처. 사진: Referat Weltkirche)



**대구대교구**

**2019**